제183호(2019. 10. 8.)
KREI 농정포커스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김종선·이윤정·조선미

요 약

동남아 6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쌀 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과 한국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이들 국가의 쌀 산업 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 추진 필요

-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 28일「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 신남방 정책 대상 국가들 중 동남아 6개국(이하 CLMVIP 국가)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이며, 중점협력분야로 농업분야가 포함됨.
- CLMVIP 국가는 2018년 기준 세계 쌀 생산면적의 21.8%를 차지하는 주요 쌀 생산 국가로 쌀 산업 관련 ODA 지원이 필요함.

동남아 6개국의 쌀 생산량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쌀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은 1%로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동남아 6개국의 쌀 수출량은 전 세계 쌀 수출량의 22.8%를 차지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는 쌀 수출국으로 볼 수 있음.
-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라오스의 쌀 수출량은 적은 편임.

그러나 쌀 생산성이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어 관련 ODA 지원 필요

- 인도네시아, 필리핀: 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우수 품종 개발, 농자재 산업 지원, 기술보급 등)
- 베트남: 쌀 부가가치 제고 및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RPC 등 저장 및 가공시설, 수확후관리 등)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쌀 고품질화 등 고급화 전략 지원 필요(유기농 쌀 생산, 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등)

감 수	허장 선임연구위원	061-820-2357	heojang@krei.re.kr
내 용 문 의	김종선 부연구위원	061-820-2210	sun589@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9. 10.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01

신남방 정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 28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1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중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제11번)' 과제는 신남방지역의 각 국가별 협력 수요에 따라 농산업의 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을 적용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신남방 국가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농산업분야 기업의 신남방지역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1〉 신남방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사람 공동체	상생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
1.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2.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 신남방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4.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 5. 상호간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 증진 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8. 신남방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9.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12. 신남방 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14.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15.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16.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자료: 신남방정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최종검색일: 2019. 7. 27.)

신남방 정책 대상 국가들 중 CLMVIP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는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이며, 농업분야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1)]상 중점협력분야[2)]에 포함되어 있음.

- 특히 CLMVIP 국가는 2018년 기준 세계 쌀 생산면적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쌀 생산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쌀 산업분야 국제개발협력사 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짐.

따라서 CLMVIP 국가의 쌀 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과 한국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이들 국가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신남방 정책 활성화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1) 국가협력전략은 협력국의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3~5년간의 對협력국 ODA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원조 전략임. 중점협력분야로는 지역개발,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공공행정, 재해예방, 통신, 에너지 등이 있음.
2) 우리나라의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서 농업분야는 '지역개발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 관리 및 공공행정 분야'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02

동남아 6개국의 쌀 생산 및 수출입 현황

2.1. 쌀(Milled Rice) 생산 현황

CLMVIP 국가의 쌀 생산면적은 2018년 기준 3,600만 ha로 전 세계 쌀 생산면적의 2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쌀 생산국가라고 할 수 있음(〈표 1〉 참조).

- 동남아 6개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가장 넓은 쌀 생산면적(1,220만 ha)을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와 베트남이 각각 705만 ha와 755만 ha를 가지고 있음.
- 라오스는 가장 작은 쌀 생산면적(82만 ha)을 가지고 있음.

〈표 1〉 CLMVIP의 쌀 생산면적

단위: 천 ha, %

국 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캄보디아	2,778	2,767	2,980	2,969	3,028	3,025	3,095	3,184	3,190
라오스	855	817	934	891	958	965	973	963	820
미얀마	7,050	7,030	7,040	7,050	7,040	6,900	7,030	7,100	7,050
베트남	7,607	7,740	7,864	7,788	7,823	7,704	7,714	7,645	7,550
인도네시아	12,075	12,160	12,190	12,100	11,830	12,100	12,240	12,250	12,200
필리핀	4,528	4,579	4,698	4,800	4,705	4,523	4,723	4,844	4,805
CLMVIP	34,893 (22.0)	35,093 (21.9)	35,706 (22.3)	35,598 (21.9)	35,384 (21.8)	35,217 (22.0)	35,775 (22.0)	35,986 (22.1)	35,615 (21.8)
전 세계	158,501	160,062	159,861	162,208	162,124	160,294	162,840	162,965	163,622

주 1) 각 연도는 회계연도를 의미함(예: 2010년은 2010~2011년).
2) ( )는 비중
자료: 미국농무부(https://apps.fas.usda.gov/psdonline). 검색일: 2019. 6. 20.

2018년 기준 CLMVIP 국가의 쌀 생산량은 9,700만 톤으로 전 세계 쌀 생산량의 19.4%를 차지하고 있음(〈표 2〉 참조).

- 이들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각각 3,700만 톤과 2,800만 톤으로 가장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음.

〈표 2〉 CLMVIP 국가의 쌀 생산량

단위: 천 톤, %

국 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캄보디아	4,358	4,637	4,907	4,960	4,925	4,931	5,256	5,554	5,633	2.9
라오스	1,400	1,395	1,695	1,650	1,875	1,925	1,950	2,000	1,680	2.0
미얀마	11,060	11,473	11,715	11,957	12,600	12,160	12,650	13,200	13,100	1.9
베트남	26,371	27,152	27,537	28,161	28,166	27,584	27,400	27,657	27,711	0.6
인도네시아	35,500	36,500	36,550	36,300	35,560	36,200	36,858	37,000	37,100	0.5
필리핀	10,539	10,710	11,428	11,858	11,914	11,008	11,686	12,235	12,000	1.5
CLMVIP	89,228 (19.8)	91,867 (19.6)	93,832 (19.7)	94,886 (19.7)	95,040 (19.7)	93,808 (19.7)	95,800 (19.5)	97,646 (19.7)	97,224 (19.4)	1.0
전 세계	451,577	469,667	475,840	481,221	482,351	476,044	491,115	495,027	499,889	1.1

주 1) 각 연도는 회계연도를 의미함(예: 2010년은 2010~2011년).
2) ( )는 비중
자료: 미국농무부(https://apps.fas.usda.gov/psdonline). 검색일: 2019. 6. 20.

2010년부터 2018년까지 CLMVIP 국가의 연평균 쌀 생산량 증가율은 1%로 전 세계(1.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쌀 생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쌀 생산량은 각각 2.9%와 2.0%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18년 기준 CLMVIP 국가의 쌀 생산성(ha당 쌀 생산량)을 보면, 베트남의 ha당 생산량이 3.7톤으로 가장 높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쌀 생산성은 전 세계 평균 생산성(ha당 3.1톤)보다 낮음(〈그림 2〉 참조).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쌀 생산성은 ha당 2톤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라오스의 쌀 생산성은 연평균 2.3% 증가율로 CLMVIP 국가 중 쌀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음.

〈그림 2〉 CLMVIP 국가의 쌀 생산성(2018년 기준)

주 1) 쌀 생산성은 2018년 기준(한국은 2017년 기준).
2)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쌀 생산성의 연평균 증감률임(한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임).

2.2. 쌀 수출입 추이

2018년 기준 CLMVIP 국가의 쌀 수출량은 약 1,065만 톤으로 전 세계 쌀 수출량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쌀 수출량은 650만 톤으로 동남아 6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쌀을 수출하는 국가임.

- CLMVIP 국가 중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는 쌀 수출국가로 볼 수 있음.

반면, CLMVIP 국가 중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필리핀과 라오스는 쌀 수출량이 매우 적음.

〈표 3〉 CLMVIP 국가의 쌀 수출량

단위: 천 톤, %

국 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캄보디아	860	900	1,075	1,000	1,150	1,050	1,150	1,300	1,300
라오스	9	19	16	18	60	64	71	84	50
미얀마	1,075	1,357	1,163	1,688	1,735	1,300	3,350	2,750	2,800
베트남	7,000	7,717	6,700	6,325	6,606	5,088	6,488	6,590	6,500
인도네시아	0	0	0	0	0	2	2	2	2
필리핀	0	0	0	0	0	0	0	0	0
CLMVIP	8,944 (25.4)	9,993 (25.0)	8,954 (22.7)	9,031 (21.0)	9,551 (21.9)	7,504 (18.5)	11,061 (23.4)	10,726 (22.8)	10,652 (22.8)
전 세계	35,216	39,956	39,407	43,057	43,634	40,458	47,284	47,099	46,728

자료: 미국농무부(https://apps.fas.usda.gov/psdonline). 검색일: 2019. 6. 20.

〈표 4〉 CLMVIP 국가의 쌀 수입량

단위: 천 톤, %

국 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캄보디아	5	10	40	9	20	30	20	20	20
라오스	24	13	6	23	214	228	82	52	200
미얀마	0	0	0	0	11	33	10	10	10
베트남	500	100	100	300	400	300	500	500	400
인도네시아	3,098	1,960	650	1,225	1,350	1,050	350	2,350	500
필리핀	1,300	1,200	1,400	1,200	1,800	1,600	1,100	1,300	3,000
CLMVIP	4,927 (14.9)	3,283 (9.2)	2,196 (6.0)	2,757 (7.1)	3,795 (9.1)	3,241 (8.5)	2,062 (5.1)	4,232 (9.0)	4,130 (9.3)
전 세계	33,058	35,505	36,734	38,725	41,525	38,325	40,797	46,841	44,203

자료: 미국농무부(https://apps.fas.usda.gov/psdonline). 검색일: 2019. 6. 20.

한편, CLMVIP 국가의 쌀 수입량은 2018년 기준 413만 톤으로 전 세계 쌀 수입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쌀 수입량이 300만 톤에 이르는 필리핀은 가장 많은 쌀을 수입하는 국가임.

03

동남아 6개국의 쌀 산업 관련 정책 현황

CLMVIP 국가 중 쌀 주요 생산국인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쌀 산업 관련 정책을 파악하여 이들 국가의 정책적 우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3.1. 미얀마

미얀마 정부의 쌀 산업(생산 및 가공)에 대한 정책지원은 최소화되고 있으며 농업개발은행(MADB)을 통한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함(〈표 5〉 참조).

한편, 쌀 수출쿼터 폐지, 수출세 인하 등 쌀 수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쌀 수출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쌀 생산량,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쌀 생산이 감소하여 국내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쌀 수출을 제한하기도 함.

〈표 5〉 미얀마의 쌀 산업 관련 정책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저금리 융자 제공	❍ 미얀마는 쌀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국내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정부 소유의 농업개발은행(MADB)을 통해 농민에 대한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음. - 2013/14년에 MADB로부터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에이커당 50,000 MMK(미얀마 캣, $55 수준)에서 농민당 최대 100,000MMK($110)로 증가하였음. 또한 2012년 이후 MADB 신용에 대한 이자율은 8.5%로 시장 금리(12~13%)에 비해 낮음. - 만델레이 지역의 경우,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690에이커당 최대 55,023MMK($56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쌀 수출 자유화	❍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수출 규제를 통한 것이 대부분임. 미얀마는 수출 쿼터가 폐지된 2003년부터 쌀 수출 규정을 자유화하였음. - 2011년에 시행된 무역 자유화 조치는 쌀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이러한 조치에는 민간 기업이 쌀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기관인 쌀 산업협회(MRIA)의 역할을 축소시켰음. - 또한 최소 수출 가격(minimum export prices) 폐지, 국경 근처 지역으로의 쌀 운송 허가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수출세를 10%에서 2%로 인하하였음. ❍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도 정부는 국내 쌀 가격, 생산 및 소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태풍 나기스의 여파로 쌀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도 미얀마 정부는 국내 공급을 규제하고 피해지역의 쌀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였음.

자료: USITC(2015).

3.2. 베트남

베트남의 쌀 산업관련 정부정책은 농가소득 안정, 생산량 증대, 고품질 쌀 품종 개발, 쌀 수출 촉진 등을 위해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표 6〉 참조).

- 이를 위해 종자연구, 쌀 공공비축, 관개시설 등에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쌀 최대수확기 동안의 최소 쌀 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s), 최소 수출가격 등 쌀 가격 결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표 6〉 베트남의 쌀 산업관련 정책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생산 정책	생산 목표	❍ 정부는 농지 지정을 통해 벼 생산면적 및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함. 베트남 농지법에 따르면 쌀 생산을 위해 등록된 농지는 국토 할당량으로 인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음. ❍ 2014년 7.75백만 ha에서 쌀이 생산되었으며, 베트남은 2015년에 26만 ha의 논을 옥수수 재배를 위한 농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함.
	종자 연구	❍ 정부는 전국의 쌀 연구소에서 실시된 특정 종자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2013년에 약 300억 베트남 동(약 150만 달러)을 지원함. -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쌀 종자 연구소에서는 베트남에서 개발되고 사용된 새로운 벼 종자의 약 4%를 생산하고 있음.
	최소지지가격	❍ 베트남 식품청(Vietnam Food Association)은 최대수확 시기의 생산비용과 30%의 이익 마진을 기준으로 쌀에 대한 최소지지가격(Minimum Support Prices)을 책정 - 2007~11년 기준 MSP는 2008/11 VND 3,500/kg(2010년 11월 기준 VND 5,000/kg)이었음. ❍ 가격지지 프로그램은 임시 저장을 위해 지정된 물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한 벼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수출됨.
	관개시설 개선	❍ 정부는 쌀 생산 관련 관개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축 정책	공공비축	❍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일정량의 공공비축량을 유지하고자 함.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전체 쌀 공급량의 15%(쌀 50만 톤 상당)를 비축하였음. - 이러한 공공비축미 저장을 위하여 정부는 400만 톤의 쌀 저장 시설을 보수하고, 2009년 280만 톤 규모의 새로운 저장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투자에 착수하였음.
무역 정책	최소수출가격 (Minimum Export Prices)	❍ 최소수출가격(MEP)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확량이 가장 많은 기간에 VFA(베트남 무역기구)에 의해 설정됨.
	수출 요건	❍ 2011년에 정부는 수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5,000톤의 쌀을 생산하며, 최소 용량 10톤의 저장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수출 요건을 수립하였음. ❍ 이 법령은 쌀 수출 허가권이 있는 베트남 식품청(VFA)에 의해 시행되며, 쌀 수출에 대한 각 구매 주문서는 VFA의 승인이 필요함.
	국영무역 (State Trading)	❍ SOE Vinafood 1과 Vinafood 2는 G2G 판매 등의 협상을 통해 수출하고 있음. 일단 협상이 이루어지면 VFA는 총 계약 규모를 개인 소유 및 국영 회사에 할당하고 있음.

자료: USITC(2015).

3.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은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쌀 자급(rice self-sufficiency)이 농업정책의 주요 목표임. 이를 위해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증대, 탄수화물(쌀 포함) 위주에서 벗어난 식품 다양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쌀 관련 정책은 가격지지, 비료와 종자 등 투입재에 대한 지원, 쌀 수출입 물량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쌀 가격 결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표 7〉 인도네시아의 쌀 산업관련 정책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주요 정책 목표	❍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의 주요 초점은 쌀 자급임.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트윈 트랙 전략 (twin track strategy)"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비자에게 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쌀 부문의 정부 정책은 가격 지원, 투입재 보조금 지원, 수출입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BULOG(Indonesian Bureau of Logistics, 인도네시아 유통국)가 정미를 구매하고 BULOG의 재고 관리 및 수입 통제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시장 가격 이하의 자본에 대한 접근은 주로 식량 안보 및 에너지 신용(KKP_E), 국민 비즈니스 신용(KUR) 및 농촌 농업 개발 프로그램(PUAP)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 인도네시아 유통국(BULOG)은 국내 수요의 3~6개월 분량의 쌀을 비축함. - BULOG는 일반적으로 성수기에는 벼와 정미를 구입하고 가격 상승 시 비수기에 판매
비료	❍ 비료는 토지 2ha 미만의 소농들에게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 - 국영 비료 회사는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비료를 해당 농민에게만 판매 - 직접 비료 보조는 시범사업의 일부 소규모 농가들과 유기농가에만 제공
종자	❍ 정부는 세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종자 지원 -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종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두 개의 국영 종자 회사에 지원 - 시범 프로젝트에 있거나 국가 재해의 영향을 받는 농가에 무료 인증 종자 제공 -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무료 종자를 제공하는 고품종 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용	❍ 정부는 식량 안보 및 에너지 신용(KKP_E), 국민 비즈니스 신용(KUR) 및 농촌 농업 개발 프로그램(PUAP)을 통해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로 정책자금을 지원함. - KKP_E는 벼 재배 농가에 6%의 대출 금리 적용 - KUR은 시장 금리 대출의 70%까지 보증 - PUAP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농민 단체(gapoktan)를 통해 자금 지원
재해 지원	❍ 정부는 Puso Rice Alleviation Aid 프로그램을 통해 해충, 질병, 가뭄 또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재해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BP3 기금은 2011년 약 2,700만 달러에 달하였음.
소비 정책	❍ 인도네시아 유통국(BULOG)은 Raskin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에 시장가격 이하의 쌀을 제공하며, 2013/14년에 1,560만 가구에 2.795백만 톤의 쌀 공급을 목표로 하였음.
수출	❍ 쌀은 잉여분이 있을 시에만 수출할 가능성이 있음. 중간 품질 쌀의 수출은 인도네시아 유통국이 제한을 두고 있음. 민간 수출업자는 농무성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후 고급 쌀을 수출할 수 있음.
수입	❍ 중간 품질 쌀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유통국에서 제한하고 있음. 민간 수입업자는 허가를 받아 고품질, 특산물 및 100% 파쇄미만을 수입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최혜국대우(MFN) 수입세율은 kg당 450루피아(약 36달러/mt)이며, 최종 양허세율은 쌀 가격의 160%임. ASEAN 무역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쌀의 관세는 2015년 1월 1일 기준 25%에 달하였음.

자료: USITC(2015).

지금까지의 각 국별 쌀 관련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쌀 수출국가인 미얀마와 베트남은 쌀 수출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미얀마는 수출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 기업의 쌀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쌀 수출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쌀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목표치 수립, 최대 수확기의 일정 물량 비축, 최소수출가격 설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쌀 수입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쌀 자급률 제고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입재(비료, 종자 등) 지원, 신용 제공 등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쌀 산업은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으나, 미얀마의 경우에는 쌀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미하여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04

동남아 6개국 쌀 산업 관련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지난 2010년부터 KOICA와 농림축산식품부는 CLMVIP 국가를 대상으로 쌀 산업과 관련한 18개의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표 8〉 참조).

〈표 8〉 동남아 7개국 쌀 관련 한국의 ODA 추진 현황(2010년 이후)

국 가 (사업 수)	사업명	주요 지원 분야
캄보디아 (1개)	캄보디아 쌀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 ('15~'18/30.41억 원)	수확후관리(건조저장시설 건립)
라오스 (3개)	라오스 시엥쿠앙주 관개시설 설치사업('12~'17/44억 원)	영농기술 전수, 관개용 댐, 관개수로 건립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구축 및 인적 역량 개발('14~'16년, 21억 원)	식량안보 관련 정보 관리 및 관련 역량 강화
	라오스 쌍통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15~'18년/45억 원)	관개용 댐, 관개수로 건립
미얀마 (7개)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11~'13/15억 원)	영농기술 전수, 수확후관리 개선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 사업 ('13~'16/28억 원)	영농기술 전수(품종개발 포함), 농기계 지원
	미얀마 종자품질 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 ('15~'17/10억 원)	종자 생산 관련 컨설팅, 교육 및 관련 기자재 지원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 ('16~'19/38.84억 원)	영농기술 전수, 수확후관리(건조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 건립 등)
	미얀마 피아폰군 벼농업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쌀 산업 역량강화 사업('19~'23/44억 원)	영농기술 전수, 수확후관리 (벼농업서비스센터, 건조저장시설 건립 등)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 훈련사업 ('13~'17/600만 달러)	영농기술 전수, 농기계 지원, 농업기계훈련센터 건립, 관개시설 개선
	미얀마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지정리사업('13~'15/600만 달러)	영농기술 전수, 관개시설 개선
베트남 (1개)	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19'~23/53억 원)	쌀 산업정책 컨설팅, 농업인프라 구축, 쌀 농민조합 역량강화 등
인도네시아 (2개)	인도네시아 벼농사기계화단지 조성사업('13~'14년/28억 원)	영농기술 전수, 농기계 지원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구축 및 인적 역량 개발 ('14~'16년, 21억 원)	식량안보 관련 정보 관리 및 관련 역량 강화
필리핀 (4개)	필리핀 농촌개발사업('10~'13/10.8억 원)	시범포 조성
	필리핀 MIC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 ('15~'18/29.8억 원)	수확후관리(건조시설 건립 등)
	필리핀 우량 벼종자 생산 및 보급 역량강화 사업 ('13~'17/400만 달러)	벼 종자 가공시설 건립, 전문가 역량강화, 우량 벼종자 보급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구축 및 인적 역량 개발 ('14~'16년, 21억 원)	식량 안보 관련 정보 관리 및 관련 역량강화

주: ODA사업 중 컨설팅사업(KSP, KAPEX, KOPIA 등)과 연수사업은 제외하였음.
자료: 허장 외(2017);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사이트. 〈https://stats.koreaexim.go.kr〉. 검색일: 2019. 6. 20.

CLMVIP 국가 중 쌀 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쌀 생산량과 쌀 수입량이 적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모두 11개의 ODA 사업이 지원되었음.

- CLMVIP 국가 중 쌀 수입량이 가장 많아 국내 쌀 생산량 확대가 필요한 필리핀의 경우에는 수확후 관리시설, 우수종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4개의 사업이 지원되었음.

한편, 쌀 자급률 제고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벼농사 기계화·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2개의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는 베트남에는 쌀 가치사슬 개선사업 1개가 지원되었음.

- 반면, 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우선순위가 낮은 미얀마에는 쌀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전수 사업, 농기계화 사업 등 7개의 ODA사업이 지원되었음.

이와 같이, 동남아 6개국의 쌀 산업관련 ODA사업은 각 국가의 쌀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아시아 국가의 쌀 산업 현황과 정책적 우선 순위를 바탕으로 개별 대상국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함.

05

쌀 산업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인 CLMVIP 국가는 전 세계 쌀 생산량의 19.4%를 차지하며, 쌀 수출량의 22.8%를 차지하는 쌀 생산국이지만, 쌀 생산성이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쌀 산업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쌀 산업관련 한국의 ODA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음.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국내 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쌀 산업 관련 정부 지원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쌀 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 사업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음. 반면, 쌀 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국내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ODA 사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따라서 향후 동남아 6개국에 대한 쌀 산업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내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해서는 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 우수품종 개발 및 보급 지원
  -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산업 지원
  - 농업기술보급 및 교육을 위한 지원(Extension service 지원) 등
  - 신남방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종자, 비료 및 농약 등 한국의 농기자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 진출 필요

- CLMVIP 국가 중 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정책목표로 하는 베트남을 대상으로는 쌀 부가가치 제고와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친환경농업과 우수종자 개발을 통한 쌀 품질 제고 지원
  - RPC 등 저장 및 가공시설과 수확후 처리기술 지원
  - 농가조직의 역량강화 및 정책컨설팅 지원
  - 베트남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농자재, 종자 등 한국의 농자재산업 진출 필요

-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국내 쌀 수급 등 쌀 산업 전반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쌀 산업의 고급화 전략을 위하여 쌀 고품질화, 유기농 쌀 생산,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쌀 가공식품 생산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쌀 산업 고급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정책컨설팅
  -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등

결론적으로, 향후에 추진될 동남아 6개국의 쌀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쌀 생산성 제고와 쌀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의 관련 농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참고문헌

허장 외. 2017. 국제농업 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연구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5. Ric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U.S. Industry.
미국 농무부.〈https://apps.fas.usda.gov/psdonline〉. 검색일: 2019. 6. 2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 검색일: 2019. 7. 27.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사이트. 〈https://stats.koreaexim.go.kr〉. 검색일: 2019. 6. 20.

2019년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회,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KREI 농정포커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